

평화는 시대 스승이다

작성일: 2011. 2. 11. (금) 오전 7:00

작성자: 김기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셔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위대한 공적 중 하나는 서로 화평케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평화’라는 것이다.

싸움은 지옥 문화이며
사탄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일이지만,
반대로 사이 좋게 분쟁 없게 만드는 화평 세계,
즉 ‘평화’의 세계는 천상천국의 삶을
이 땅에 옮겨 놓는 것과 같다.

공적의 종류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노라.
하지만 여러 위대한 공적 중 한 가지를 알려주고자
하니
잘 듣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 생활 가운데 잊지 말
고 행하는
나의 귀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섭리사 신부들이여,
오늘 이 고요한 아침에 내 신부들에게
신랑 주 예수가 부드러운 소리로 속삭이고자 하니
내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음미하며
너희 것으로 삼아 완전한 천국인으로 변화되기에
합당한
길잡이 진리 말씀 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어보자.

(주님이 이상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떠오르게 하셔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 장은 주님이 주셔서 찾아 기록했습니다.)

❏ 살전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시다.
사람이 정한 법으로 평화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시대가 가고 사람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니
그때그때 일일이 다 법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고,
각 나라 다양한 민족인데
어찌 인간이 정한 한 법으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
으리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야
이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모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평화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잘 모르는 자 있도다.
그래서 너희의 사랑, 신랑 주 예수가 말하려 하니
잘 들어보고 근본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닫고
시대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될
지니라.
자, 다시 보자.

(주님 말씀에 이상으로 로마서가 떠올랐습니다.)

❏ 롬 2장 12~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
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니)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말하길 즐겨하는 자도 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 그러하니 더 안타깝도다.
하늘 앞에 물어서 가장 이상적인 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와 경험을 유추해서
마치 완벽한 진리를 발표하듯
하나님을 뒤로 하고 본인이 앞에 서서
아주 우렁차게 말하는구나.
세상 법이 진리가 아니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한 한마디

라도

그것이 영육 세계를 지배하는 진리 법이거늘
인간 세상 법을 정해 놓고
내 사랑하는 자들은 그 법이 완전한 진리 법으로
알고
하나님 법보다 인간의 법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구
나.

❏ 눅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들을 자의 소리를 들어야 살아날 것이요,
살릴 자의 소리를 들어야
영원한 삶이 보장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니라.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그 능력과 권세를 지녔다는 것이다.
너희의 전통과 생각, 경험으로 정한 모든 법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그 말이
이 세상 모든 자고 있는 자도 살리고,
죽어 있는 자까지 살린다는 것이다.

❏ 눅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에 답이 있고
영원히 너희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영생길로 갈 수 있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영으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나
예수를
너희 모두가 보는 것이 합당하나
너희의 조상 즉 신앙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법을 어겨
그 모든 완전한 축복권을 다 땅에 떨어뜨려
지금까지 내 사랑들과 나, 내 사랑들과 하나님이
애타고 간절하지만
서로 직접 보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노라.

땅에 떨어진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
노라.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법을 안 지킨 아담 하와는
사탄의 세계로 넘어가 갖은 근심 걱정 고민으로
육 또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바로 사탄 편 세계에 속하
게 되나니
온갖 영육의 고통을 받은 것이다.

이 시대 역시 그러하다.

진리 말씀을 완전하게 내 놓아도
듣는 자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무색해지
고

너희 영육 역시도 보장할 수 없는 세계로
순식간에 가 버리노라.

너와 나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다.

‘평화’라 함은 곧 하나님이다.

‘평화’라 함은 곧 예수다.

‘평화’라 함은 시대 너희 스승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평화라는 것이다.

안전 주권권, 보호 주권권, 천국 주권권,

호흡 주권권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너희의 영육이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사탄 주권권을 보라.

날마다 울고, 싸우고, 욕하고, 심정 상하고
갖은 고민 근심 걱정애 싸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
는데

제때 숨이라도 고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법이 좀 어렵다 하여 바로 벗어나면

사탄들이 그 즉시 달라붙어

너희 뒤통수에 사탄 것이라고 딱지 다 붙이며

자랑하고 다닐 것이다.

몸이 고달파도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은 것이고,
좀 지키기 어렵다 해도 그 영생 길을 끝까지 따라
가는 것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생명길이니라.

알아야 한다.

너희를 대신해 더 큰 평화의 법,

즉 한 번에 내게 도달할 수 있는 영생 법을 이루고
자

스승이 그곳에 있게 된 것을 말이다.

❏ 벧후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평화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도 ‘평화’라는 단어를 쓰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평화는 깨끗함에서 온다.

평화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 징표다.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 말씀을 선포
하라.

이곳저곳 사탄 무리들이 사탄 법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

너희가 더 깨어 근신하여

주의 기치 있는 신부가 되어 시대 복음을 선포하라.

선생이 시대 말씀 나팔을 계속 불며

전 세계를 하나님 법으로 천국 평화를 먼저 선포하
니

너희는 그의 작은 나팔이 되어 불고 불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모두의 사역은

각 처소에서 시대 복음 나팔을 나와 함께 부는 것
이다.

❏ 벧전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벧전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
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
시리라

이 시대는 표상 스승의 고난 값으로

지금까지 평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라.

이 시대 평화의 값은 너희 스승의 십자가 값이니라.

알고 기도하라. 알고 말하라.

진정 깨닫기를 원하노라.

긴 말씀은 늘 단상 통해 은밀히 비유로,

때론 직접적으로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

너희 마음으로, 깊은 심정으로 ‘쿵’ 소리가 나게

깊고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알고 시대 말씀을 선포하는 내 사랑들 되어라.

사랑한다.

평화의 왕 주니라.